류현진 ML ERA 1위 생애 첫 FA 대박 예감

▶1면에서 이어집니다

올해 류현진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야구에도 선명한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 선수가 ML에서 타이틀 1위에 오른 것은 투타 합쳐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박찬호(당시 다저스)가 217탈삼진으로 이 부문 NL 2위·ML 3위에 오른 게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다. 아울러 아시아 투수 최초의 ERA 1위 수상이다. 탈삼진 부문에서 노모 히데오(1995·2001)가 두 차례, 2013년 다르빗슈 유(텍사스)가 타이틀을 따낸 바 있지만, ERA 부문 수상은 요원했다. 1995년 노모가 ERA 2.54로 전체 3위에 오른 바 있는데 류현진이 새 역사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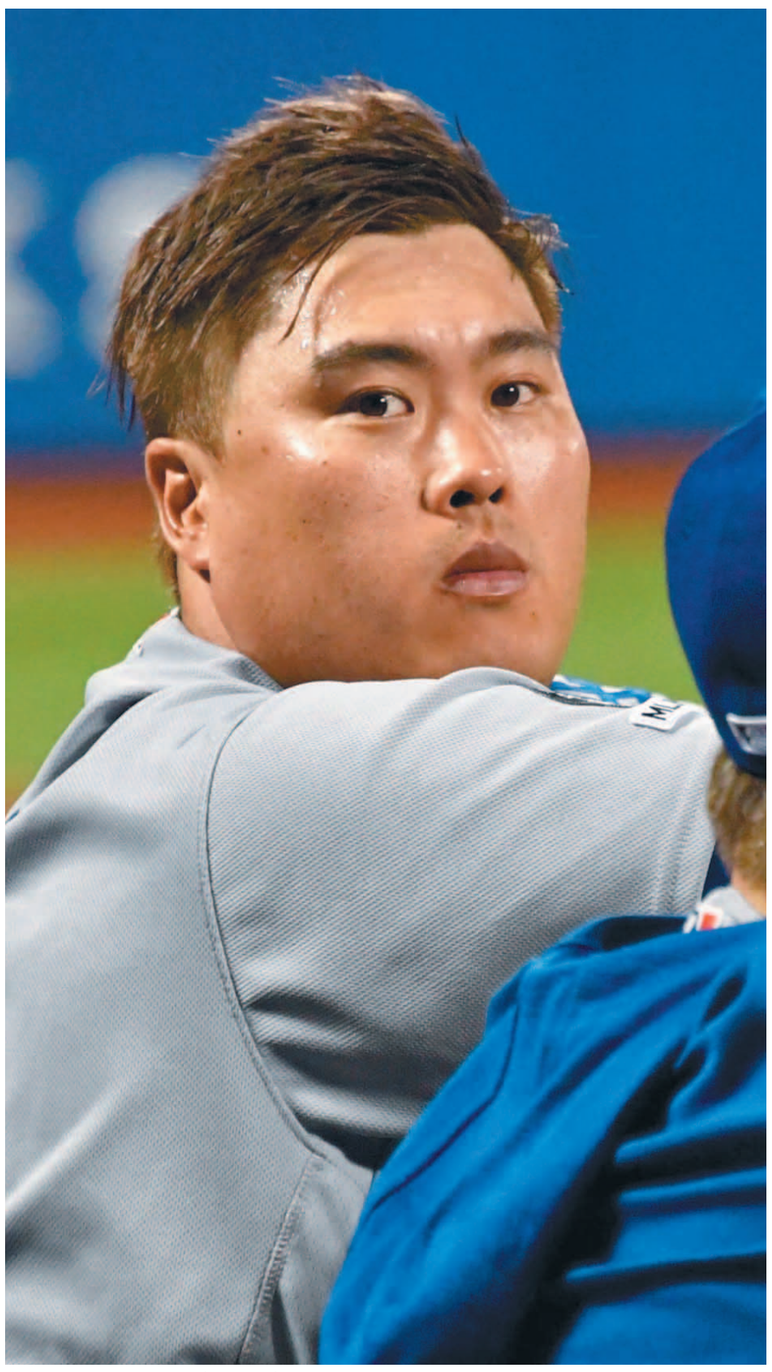
'배수의 진'이 통했기 때문에 더욱 극적인 시즌이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종료 후 생애 첫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지만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QO)를 수락했다. 사실상 'FA 재수'를 택한 것이다. 지난해 15경기에서 14승5패, ERA 1.97을 기록했지만 차가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대형 계약은 쉽지 않았다. 결국 한 발 물러난 류현진은 포스트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 시즌 종료 후 '대박'을 예고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괴물의 힘은 야구의 본고장에서도 통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SF와 정규시즌 최종전 무실점…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뜨거운 찬사'

"류현진이 사이영상 이력서를 완성했다"

-LA 타임스



LA 다저스 류현진이 29일(한국시간)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원정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주인공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류현진의 정규시즌 최종전 호투에 외신은 일제히 "사이영상 판도가 다시 흔들렸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LA 다저스 홈피

MLB닷컴 "RYU 사이영상 최종 입찰"
LA매체 "사이영 판도 다시 뒤흔들어"

경쟁자 디그롬 치켜세운 겸손한 RYU
"내 엄청난 노력 입증…성공적인 해"

"사이영상을 받을 만한 투구를 다시 보였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의 화려한 2019 피날레에 미국 현지 언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간)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원정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의 2-0 승리를 이끌며 시즌 14승을 거뒀다. 평균자책점을 2.32로 낮추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자리를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지켰다.

이날 경기 전까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에 가장 가까운 투수는 뉴욕 메츠의 제이콥 디그롬(31)이었다. 디그롬은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류현진에게 내줬지만, 11승8패 평균자책점 2.43의 우수한 성적을 올해 남겼다. 이닝은 무려 204이닝을 소화했고, 삼진도 255개나 잡았다.

그러나 류현진이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평균자책점을 크게 끌어 내리면서 둘의 사이영상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LA 현지 언론은 일제히 "류현진이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류현진은 그러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인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29일 경기가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30경기에 선발등판하고 싶었는데, 그에 근접한 29번의 등판을 했다. 평균자책점 1위 타이틀은 기대하지 않은 깜짝 선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지 언론의 사이영상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적인 해였다. 내 엄청난 노력을 입증한 증거"라고 답한 뒤 "디그롬이 (사이영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록을 봤을 때 그는 놀라운 한 해를 보냈다. 삼진과 이닝에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두 항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이 타이틀 수상에 있어 경쟁자에게 더 큰 점수를 줬지만, 현지 언론의 '류현진 찬사'는 좀처럼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LA 지역매체인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류현진이 사이영상을 받을 만한 투구를 다시 보였다. (사이영상 경쟁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었다"며 "29일 호투로 사이영상 판도를 다시 흔들었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다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LA 타임스는 "류현진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로 자신의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이력서를 완성했다"고 언급했고, MLB닷컴 역시 "류현진이 사이영상 수상에 마지막 입찰을 했다"고 밝혔다.

사이영상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의 투표로 그 최종 주인공이 가려진다. 평균자책점의 류현진, 이닝과 삼진의 디그롬. 표심이 어디로 크게 기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류현진 2019시즌 주요 부문 기록 (29일 현재)

부문	기록	순위
평균자책점	2.32	ML 1위
다승	14승	NL 6위·ML 18위
이닝	182.2이닝	NL 13위·ML 30위
WHIP(이닝당 출루허용)	1.01	NL 3위·ML 6위
이닝당 볼넷 허용	1.18	ML 1위
K/BB(삼진/볼넷 비율)	6.79	NL 2위·ML 4위

류현진 29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전 투구 기록**

타순	타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 (二)	솔라노	삼진			삼진	三땅		
2 (유)	두본	삼진			중안		삼진	
3 (포)	포지	유땅			우안		유땅	
4 (三)	롱고리아		二비		우비		二직	
5 (중)	필라		二땅		좌비			유비
6 (一)	슬레이터		一땅			유땅		三땅
7 (우)	데이비스			투땅		二땅		유안
8 (좌)	리카드			삼진		좌안		삼진
9 (투)	웨브			삼진		우안		

"위협적인 SON"…골 없이도 'MOM'

EPL 7R 사우샘프턴전 선제골 도움·결승골도 관여

손흥민

골이 없어도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경기였다.

손흥민(27·토트넘)이 2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라운드 사우샘프턴과 홈경기에서 선제골 도움과 결승골 관여로 2-1 승리를 이끌었다.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영국 공영방송 BBC는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손흥민에게 맨 오브 더 매치(MOM) 타이틀을 수여했다.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4분 선제골을 도왔다. 왼쪽 문전에서 공을 잡은 뒤 이를 은돔벨레에게 건넸고, 은돔벨레는 강력한 왼발슛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다.

선제골로 앞서 가던 토트넘은 전반 39분 골키퍼 위고 로리스의 실수로 동점을 허용했다. 백패스를 받은 로리스가 발재간으로 상대의 공격 압박을 뚫어내려고 했지만, 대니 잉스가 이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다.

급격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토트넘을 되살린 주인공 역시 손흥민이었다. 전반 43분 역습 상황.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2대1 패스를 통해 문전으로 침투했고, 이 공이 다시 에릭센을 거쳐 케인에게 연결됐다. 케인은 침착하게 수비수를 제친 뒤 오른발로 역전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19분 교체 아웃됐고, 토트넘은 2-1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이날 경기 후 BBC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2골과 모두 연관됐다. 끊임없이 사우샘프턴을 위협했다"면서 손흥민을 MOM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다음달 2일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2019~2020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B조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콜먼, 100m 9초76 우승 '볼트의 후계자'

'볼트 다음은 나!' 세계 육상 단거리의 새로운 스타 크리스티안 콜먼(미국)이 2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76으로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트랙에서 성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콜먼의 결선 기록은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은퇴)가 기록한 9초58 이후 이 대회에서 나온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다. 도하(카타르) | AP뉴시스

Lotto 6/45 878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9월28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6	11	16	25	31	3

1등 총 당첨금 19,247,961,00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6	3,207,993,50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69	46,492,66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971	1,079,769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29,139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994,188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